

어린이 책꽂이



▲까불고 싶은 날=강원도 춘천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로 일하는 시인 정유경씨의 첫 동시집...



▲훈이 석이=작가 오시은씨의 신작 동화. 훈이와 석이의 놀이를 통해 아이들의 일상을 신선하게 풀어 놓았다...



▲지도를 따라가요=지도의 개념과 지도 읽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림책. 현직 교사인 조지욱씨가 쓴 책으로...



▲내 입속에 충치 가족이 살아오=아이들에게 양치질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그림책이다. 이야기 속의 충치 가족이 칫솔질을 하지 않는 아이의 입 속에서 집을 만들고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을 양치질을 하지 않으면 이 속에 이렇게 충치 가족이 살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올바른 성장을 이끄는 초등학생 가치사전=스페인의 교육학자인 에스티브 푸졸이 쓴 책이다. '검소' '자기 이해' '자제' '근면' 등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갖춰야 할 가치와 덕목을 12가지를 설명하고 각각의 덕목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가르쳐준다...



▲산성일기=꼭 알아야 할 소중한 우리 고전 시리즈. 병자호란 당시 47일 동안 남한산성에 갇혀 지내던 사람이 쓴 일기 형식의 수필이다.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전의 역사적 배경과 호란이 끝난 뒤의 상황까지 상세히 들려준다...



▲솟자전쟁=쿠바 작가 후안 다리엔의 기발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 솟자들의 전쟁 이야기를 통해 자유와 평화 같은 보편적 가치와 다른 사람과의 차이, 서로에 대한 존중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림자놀이=2002년 볼로냐 국제어린이도서전에서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에 선정된 작가 이수지의 신작 그림책.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그림자놀이를 책의 양면을 이용해 펼쳐 놓았다...

“학자 아닌 진짜 남자 ‘영웅 왕인’ 그랬죠”

왕인 1, 2, 3

송은일 지음



“학자 왕인하면 좀 그렇잖아요. 고정관념을 깨고 왕인박사를 대백제국의 역사를 만들어 간 진짜 남자, 영웅으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소설가 송은일(46)씨가 왕인을 중심으로 백제의 역사를 새롭게 바라본 소설 ‘왕인 1, 2, 3’을 출간했다.

역사속 왕인은 백제 때 일본에 건너 천자문 등을 전해주었으며 일본 황실의 스승, 아스카문화의 원조로 추앙받는 대학자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송씨의 소설로 되살아 난 왕인은 상상을 초월한다. 부활한 왕인은 학자의 이미지에 머물지 않고 고구려와 대적한 용맹한 무사이자 백제 왕실의 여인과 사랑을 나누는 뜨거운 남자, 정쟁의 음모를 이겨내는 뛰어난 지략가로 그려진다.

송씨는 수많은 역사서와 자료들을 수집해 당대의 시대상을 고증하면서도 소설적 상상력을 맘껏 발휘해 이야기의 맛을 더했다. 왕인에 대한 역사적 사료가 없어 비어있는 곳마다 여지없이 작가의 상상력이 발휘되어, 매끄럽고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학자라만 알려진 왕인에게 무사의 이미지를 더해 창의적인 캐릭터를 창조했을 뿐 아니라, 왕인의 주변 인물들도 저마다의 독특한 개성과 사연을 가진 입체적인 인물들로 구성해 한 군데 허투루 버릴 수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제일신선이자 정인인 설요, 누이 여누하, 심복 서비구, 아버지 사무사기, 무절들이 백미와 취운과, 왕인의 정부인 아사나 공주 등 개성 넘치는 인물들이 저마다의 사연을 풀어나가며 읽는 이로 하여금 때론 스릴을, 때론 가슴 벅찬 감동과 유쾌한 웃음을 안겨준다.

소설은 왕인이 백제에 의해 멸망한 마한 왕국의 후예이면서 백제인으로 살아가며 고쳐하는 모습과 함께 고구려와의 치열한 전쟁에서 전장을 누비고 광개토태왕(담덕)과 대면하는 모험담, 중국과 일본을 오가며 문물을 전하는 여정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특히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만들어간 왕인의 활약상과 비미호 여왕에 대한 이야기는 동아시아

역사에 깊은 족적을 남기고 영향을 끼친 백제의 찬란한 문명을 실감하게 한다.

송씨는 “왕인과 백제에 대해 아는 것이 없고 막연했지만,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고 유적지에 다녀보면서 한반도는 물론 대륙에 광활한 영토를 지녔던 대제국으로 당대 어떤 나라보다 진화된 문화와 문물을 지니고 살았던 나라였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송씨가 전작 ‘반야’에서 보여줬던 탄탄한 문장 구성과 체계적인 스토리 전개는 이번에도 빛을 발한다. 세 권의 만만치 않은 분량임에도 한번 손에 잡으면 끝까지 내쳐 읽게 하는 흥미진진한 서사는 일품이다.

송씨는 “방대한 스케일의 작품이라 다소 부담스러웠지만 재미난 작업이었다”며 “역사를 되살리는 소명감(책임의식)을 갖고 쓴 만큼 애착이 가고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송씨는 1995년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꿈꾸는 실낙원’이 당선되어 문단 활동을 시작했으며 2000년 여성동아 장편소설상에 ‘아스피린 두 알’이 당선됐다. 장편 ‘불꽃섬’ ‘소울 메이트’ ‘도둑의 누이’ ‘반야 1, 2’ ‘사랑을 뚫다’, 창작집 ‘남녀실종지사’ 등을 발표했다.

《Human & Books·각권 1만2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송씨는 왕인을 통해 한반도는 물론 대륙에 광활한 영토를 지녔던 대제국 백제를 되살려 내고 싶었다고 말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비극적인 케네디家の ‘파란만장사’

케네디가의 형제들

에드워드 M 케네디 지음



지난 25일 1주기를 맞은 에드워드 M 케네디의 자서전 ‘케네디가의 형제들’이 번역돼 나왔다.

에드워드 M 케네디는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케네디 가문의 막내이자 47년간 상원의원을 역임했던 미국 현대 정치의 산증인이다.

존 F 케네디와 로버트 F 케네디 두 형을 잇따라 암살로 잃고 수많은 케네디가의 비극을 겪고 자신도 비행기 사고, 자동차 사고, 각종 스캔들에 휩쓸리면서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던 그는 50년간 간직한 메모와 일기를 바탕으로 2004년부터 5년간 자신의 삶을 구술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이 책을 완성했다.

책은 전설이 된 가족, 미국이 사랑한 형제들, 케네디 이후의 케네디, 회담의 나침반 등 모두 4부로 구성돼 있다.

‘케네디가의 저주’라는 말이 불을 정도로 불운했던 케네디가 4남 5녀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드라마보다 드라마틱하다.

책은 또 스쿠벨부터 오바마까지 12명의 대통령과 함께 한 미국 정치의 속살을 보여주며 제 2차 세계대전부터 이라크 전쟁까지 60년 현대 세계사를 관통하는 충실한 보고서 역할도 한다.

《현암사·2만8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술 없이 못사는’ 주당들의 이야기

소울 푸드...

원경은·임완혁 지음



추적추적 비가 내리더라도 하면 왜 따끈한 파전에 막걸리가 생각나는 걸까?

‘소울 푸드-술과 문화 이야기’의 저자 원경은·임완혁씨는 “우리 술은 한국인의 정서가 담긴 소울(soul) 푸드”라면서 “비 오는 날엔 어김없이 파전에 막걸리가 떠오르는 것은 문화적인 미각이 소울 푸드인 우리 술을 찾았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책은 우리 술의 역사와 종류, 술 문화의 변천, 술을 제대로 즐기는 법 등을 소개한다.

‘국민주’ 소주가 한반도에 유입된 것은 몽골이 침입한 고려 후기인 것으로 전해진다. 추운 지방에 살던 몽골족이 독하고 쓴 증류주를 좋아해 호리병에 술을 넣어 허리에 항상 차고 다녔는데 몽골군이 고려를 침략할 때 증류주도 함께 들어왔다는 것이다.

‘술 없이 못사는’ 주당들의 이야기도 재밌다. 중국에 ‘주선(酒仙) 이백(李白)’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 문인 이규보가 있다. 시와 거문고, 술을 좋아해 ‘삼혹호(三酷好)’로 불린 이규보는 술을 의인화한 ‘국선생전’ 등 술에 관한 많은 시와 글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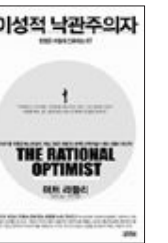
저자들은 한국인이 술을 많이 마시지만, 술을 즐기며 마시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선인들이 술을 대하던 멋과 풍류를 배움으로써 술을 마실 때 운치와 품격이 있어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는다.

《한울·1만2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100년후 인류, 전례없는 번영 예언

이성적 낙관주의자...

매트 리들리 지음



‘붉은 여왕’ ‘계몽’ 등을 펴낸 세계적 과학 저술가 매트 리들리의 ‘이성적 낙관주의자-번영은 어떻게 진화하는가?’는 제목 그대로 인류의 미래에 대해 절절히 낙관적이다.

자신을 이성적(rational) 낙관주의자라고 소개하는 저자는 “앞으로 100년 인류는 전례없는 번영을 누릴 것”이라고 단언하며 “2110년이 되면 인류는 오늘날에 비해 엄청나게 잘살고 있을 것이고 생태환경도 같은 정도로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저자는 21세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도 모든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기회를 갖게 될 것임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석기 시대에서 인터넷 시대까지 인구 폭발에서 기후 변화가 가져올 결과의 모든 것을 과학적 이성주의에 근거, 합리적이고 포괄적인 통계와 치밀한 조사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론이다.

저자는 다른 동물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인간의 끊임없는 ‘혁신 능력’을 이러한 낙관론의 근거로 제시한다. 이른바 ‘집단 지능’이 출현해 인류의 문명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현대사 전반에 걸쳐 인류의 미래에 대한 비판주의가 팽배한 가운데 “인류는 만만한 생물이 아니다”라는 코드로 인류의 미래를 읽는 모처럼의 낙관적 호언이 신선하다.

《김영사·2만5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천동 e-편한세상
선착순 잔여세대 분양(할인 최대 28% 적용)
분양률 95%이상
입주를 80%이상
30%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저에너지 아파트

믿음 공인중개사
■첨단지구 중심상업지역
첨단지구 임대
60m 대로변 2,3층 450평 분할가능1층이 옷매장들로 형성되어 유동인구가 많아 (병원, 사무실, 학원)적합

토지 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플러스부동산
년 수익률 10%이상책임보장
1억직접투자 시
년 1000만원이상소득가능
경·공매 컨설턴트 전문상담

금산공인중개사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위치 - 상무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 옆 (4면 광로변)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